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자네 말따나 그게 그것인 셈이지.

사계절을 두루 경험한 첫 번째 나의 감옥생활은 내게 이런 '유익한' 흔적을 새겼다네. '긴급조치9호'라는 박정희 정권의 악법이 역설적으로 '투사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셈이지. 자고로 양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막론하고 폭압적인 권력은 모든 것을 힘으로 억눌러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지만 더 큰 반작용으로 반드시 실패하고야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지 않았던가? 박정희 정권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던 셈이지. 1979년 10월 그는 권력유지의 최고 최강의 전위대였던 중앙정보부의 수장 손에 의해 명을 다하고 말았으니 그 역시도 그런 역사적 경험을 응변으로 증명한 셈이지.

자네도 알다시피 그 후의 나의 삶의 궤적은 1977년과 78년에 걸친 그 감옥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그려졌고 오늘에 이르렀네. 물론 그간의 삶에 부끄러운 면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난 나름대로 '올바르고 참되게' 살려고 애써 왔다고 자부하네. 그 구체적인 행로 또한 자네에게 말하고 싶지만 오늘은 밤도 깊었고 하니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네.

어떻게? 별 재미도 없는 긴 글을 읽느라 짜증나지나 않나? 하지만 좀 참아주게나. 오래지 않아 다시 편지 하겠네. 소용없는 녀드리가 되기 십상이지만 내게는 나이 선에서 돌아본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네. 바로 그 점을 자네가 너그라이 이해하고 받아주게나. 늘 자네는 내게 순위 형님 같은 아량으로 날 감싸주지 않았나.

우리도 이제는 건강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나이가 된 만치 자네도 사업을 꾸려가는 한편으로 운동 게을리하지 말고 조심하게나. 그럼 또 연락합세. 편안한 밤 지내기를 바라며 글을 맺네.

2005년 4월, 깊어가는 어느 봄 밤

1977년 4월 25일 "고대여 너를 안고 통곡한다"



소영진_고려대 행정학과 76학번, 주데이콤, 한국전신원 선임연구원,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현)

1975년, 파시즘의 광풍이 몰아치다

1975년은 유신체제가 절정이자 막바지의 발악을 하던 해였다. 그야말로 광란의 파시즘이 전국을 휘몰아쳤다.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동아광고탄압 등에도 불구하고 독재에 항거하는 물결이 계속 거세어지자 박정권은 그해 4월 초에 긴급조치7호라는 강권조치로 맞섰다. 4월 말 월남 패망을 빌미로 전국의 학교, 단체들을 관제 반공궤기대회에 동원하더니 1학기 말까지 모든 학교의 학생회를 해산하고 학도호국단으로 바꾸었다. 그 와중에 5월 13일, 그 악명높은 긴급조치의 집대성이라 할 9호가 국민의 입과 손발을 꽂꽂 묶기에 이르렀다.

나는 당시 대입을 앞둔 고3학생으로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다. 우리도 이러한 시국에 대해 무관심할 수만은 없었다. 우리는 <뉴스위크>지에 난 김지하 관련 기사를 돌려 보면서 시국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고, 광고탄압을 받고 있던 동아일보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으며, 월남 패망 후 반공궤기대회를 주도하라는 학교측의 지시를 끝까지 거부하는 등 나름대로의 민주화 열망을 표현하였다

그 해 여름, 학생회가 강제 해산되고 학도호국단이 발족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서는 학생회장이 학도호국단 연대장 지위를 승계하였지만 나는 학생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장으로서 부끄럽게 학도호국단 연대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회장직을 사퇴하였다.

비록 밖에는 파시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민주화의 봄은 이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다.

1976년, 겨울공화국

새로 입학한 고대는 왜소할 대로 왜소해진 우리에게 시대의 어둠을 깨고 일어나라는 무언의 외침을 들려주고 있었다. 자유, 정의, 진리라는 교훈이 그랬고, 4·18 기념비에 쓰여진 조지훈 선생님의 “자유, 너 영원한 활화산이여!”로 시작되는 시, “젊은 가슴, 뛰는 생명, 힘넘쳐 뛰노라.. 약한 자를 쳐들기에, 굵은 것 퍼기에 쓰리로다. 부리리라, 이 힘과 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제2교가가 그러하였다. 호상은 우리를 굽어보며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거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렇다. 우리는 자유, 정의, 진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젊은 가슴, 뛰는 생명이었다. 하지만 봄의 교정에는 우리의 생명을 압살하는 독기 가득한 검은 공기만이 가득하였다. 75년 휴교령 이후 학내는 실제로 깨끗이 청소되었다. 모든 이념서클이 해체되었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교정 밖으로 축출되었다. 이념서적은 출간, 유통, 소지 조차 금지되었고, 모든 학생활동, 집회, 게시는 학생처의 허락을 받은 후에야 가능했는데, 그 학생처는 중정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긴급조치9호는 그렇게 우리를 질식시키면서 생명 자체를 앗아가고 있었다.

교정 곳곳에는 어디나 중앙정보부 요원과 형사들의 감시의 눈길이 번득였다. 봄은 왔지만 세상은 기묘한 침묵과 얼어붙은 평온의 ‘겨울공화국’이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입학식장에서 만난 고교 선배의 권유로 고전문헌연구회에 가입하였다. 75년 휴교령으로 해체된 청년문제연구회가 학술서클로 위장등록한 것이었다. 우리는 70년대 초반의 학생운동이 과학적 논리보다는 행동 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념적 토대가 약했다는 자기비판을 하면서 과학적 사회인식과 비판의 논리를 익히기 위한 세미나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워낙 감시와 통제가 심하던 시절이라 입을 만한 책도 별로 나와있지 않았고 구하기도 어려웠다. 그중 <전환시대의 논리>는 세상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주는 신선한 충격이었으

며, 최인훈, 신동엽, 황석영, 김지하, 김수영, 신경림 등의 문학작품도 현실인식의 시각을 전달해주는 좋은 교재가 되었다. 우리는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한 후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퓌대를 올려 토론하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는 통금에 걸리면 친구 하숙집을 두드리거나 교정에 들어와 자곤 하였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은 고민의 나날이었다. 원래 내가 법대에 입학한 것은 부모님의 오랜 염원에 따른 것이었다. 긴 방황과 고민 끝에 나는 고시를 포기하기로 결심하였다. 꼭 무슨 운동을 거창하게 해보겠다는 포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고시실에 칩거하는 것을 나의 젊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나는 강의실보다는 서클실과 학교 앞 술집에 고정적으로 출석하였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시대의 아픔을 느끼고 나누는 작은 세상 이었다.

그해 가을 우연히 가게 된 창현교회 대학생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충격이었다. 학원을 떠난 선배들을 만날 수 없었던 학교와 달리 거기에는 민청학련사건과 긴급조치1호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 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학교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집회와 연합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학교가 워낙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던 시절이라 많은 학생운동가들이 교회에서 만나고 후배를 기르고 시위를 계획하는 등 교회를 활동무대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운동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교회 쪽이 더 활발하였다.

1977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다

1976년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학원이 조용했던 시기였다. 긴급조치9호의 위력은 그만큼 대단했다. 그러나 아무리 추워도 겨울은 가고 봄이 오듯이 1977년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의 억눌림에 반발하는 자연스러운 저항의 들썩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7년 4월 어느날, 나는 그날 수업을 안들어가고 서클의 75학번 선배들과 낮부터 술집에 마주앉아 시국에 대해 토론하고 다른 학교의 동정을 이야기하였다. 한 선배가 “어떤 형태로든 행동이 필요하며 나도 책임을 지겠다”는 심경을 토로하였고 한 여학생 선배는 울기 시작하였다. 뭉가 터지지 않고는 숨조차 쉬기 힘든, 그런 무덥고 짙은 공기가 나를 무겁게 짓누르

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뒤 나는 학생회관 지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밀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이제 나에게 더이상의 낭만적 젊음은 없다”는 생각에서 젊음의 상징인 장발 곱슬 머리를 깨끗이 밀어버린 것이다. 이발사 아저씨는 머리를 밀어달라는 주문에 다소 의아한 듯 재차 확인하시더니 머리를 밀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내 늘 기거하던 학생회관 2층에 올라와 게시용 모조지에 글을 써서 서클실 문에 붙였다. ‘고대여, 너를 안고 통곡한다’는 제목이었는데 내용은 직접적인 반체제 구호가 아니라 암울한 시대 분위기를 통탄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시대적 상황에 깨어나 저항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즉흥적으로 글을 써붙인 것은 시위를 촉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똥기를 내뺄지 않고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죽음의 시대에 대한 내 젊음의 단말마적 비명이었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의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장송곡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치기어린 행동이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었다. 지금도 나는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은 냉정한 과학적 논리에서가 아니라 무모한 열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게시판에 글을 붙인지 채 30분도 안되어 나는 교정에서 성복서로 연행되었다. 담당은 ‘고등계 형사’로 악명을 떨치던 김홍원이었다. 성복서 취조실에 들어가자마자 벽에 머리를 박고 뒷집진 채 발을 최대한 뒤로 빼고 몇십 분씩 버티는 일차로부터 시작해서 구타와 고문이 가해졌다. 그들의 요구는 “머리를 깎고 유인물을 부착한 것이 시위를 선동하려고 한 것이라는 진술서를 쓰라”는 것과 “누가 배후인가를 데라”는 것이었다.

사흘을 시달리다가 방면되었다. 긴급조치 위반이긴 하나 직접적으로 반정부 구호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은 되지 않고 근신이라는 학사징계에 그쳤다. 아버지의 실망과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근무하시는 학교에 형사들이 계속 찾아와서 협박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운동을 계속 하려면 집을 나가서 혼자 살라는 말씀까지 하셨다. 이후 집안의 감시가 심해져 학교도 못가고 두문불출하였지만 밖의 사정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도저히 집에 박혀 있을 수만은 없어 며칠 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는 지 얼마 안 되어 기장청년연합회가 주최한 기도회가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렸

고 나도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다. 공지되지는 않았지만 참가자들은 이 기도회에서 모종의 거사가 있으리라는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 각 교회 대학생들이 모여 교회 예배당을 채웠고, 밖에는 처음부터 형사들이 삼엄한 감시의 눈을 번득이고 있었다. 기도회가 시작되고 얼마 안있어 한신대 인태선 서울대 기길동의 시국선언 낭독이 이어지면서 예배실은 유신반대 농성장으로 변하였다.

언제 경찰이 난입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농성 참여자들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유신철폐 박정희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찬송과 운동가요를 불렀고, 토론을 벌이면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오후 드디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명동거리로 가두행진을 전개하였다. 처음에는 지리적 여건이 안좋다고 판단했는지 형사들이 바로 덮치지 않고 행렬 뒤를 얼마간 따라오더니 약 100여 미터쯤 내려간 지점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덮치면서 선두 그룹을 폭행하고 연행하기 시작하였다.

여학생들이 무자비하게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짓밟히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시위학생들이 한데 섞여 형사들에게 항의를 하였고,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연행되었다. 2진에 위치했던 나는 머리를 밀고 교련모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다.

명동파출소에서 버스로 중부경찰서로 갔고, 조금 있으니까 흠어졌다가 붙잡힌 학생들이 속속 연행되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나는 단순참가자로 분류되어 다음날 부모님이 오셔서 각서를 쓰고 나왔다. 하지만 집에 간지 얼마 안되어 나는 김홍원에 의해 재차 성복서로 연행되었다. 이번에는 서에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손가락에 볼펜끼우고 비틀기, 팔목꺾기 등 고문이 시작되었다. 지난번 연행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다가 나간 녀석이 다시 시위에 가담하여 말썽을 일으키니 속았다는 느낌에 적잖이 분한 기색이었다. 또 그동안 고대에서 유인물이 발견되었는데 내가 그 작성자를 틀림없이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취조와 구타, 고문이 계속되더니 밤이 되어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자 책상 위에 묶은 채 누여놓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후 그 위에 주전자로 물을 부어대는 소위 물고문이 시작되었다. 나는 고통에 못이겨 별로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친구의 이름을 대기도 했다. 그러자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또 고문하고...이러기를 서너 번 하더니 결국 내가 주동자를 알지 못한다고 판단한 듯 고문을 끝냈다.

27년 간의 활극

1978년 9월, 경희대 교련반대 시위

2, 3일 후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홍원으로부터 학교에서 제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작 학교에서는 아무런 통지나 설명도 없었다. 전해들은 사유는 근신 중에 시위기담으로 긴급조치를 재차 위반하여 가중징계되었다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죄의식에서 벗어난 것 같기도 했고, 나의 앞길이 확연하게 정리되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알 수 없이 불안한 4월의 공기도 원래의 따뜻한 봄날로 되돌아가 있었다.

이후 나는 학교보다는 교회 대학생부 활동과 기독교청년운동에 전념하는 한편, 학교 쪽에서는 몇몇 77학번 후배들을 모아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당시 기독교계는 매주 목요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78년 내가 서울기장청년연합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중정에서 더러운 마수를 뺏쳐왔다. 협력해주면 복학과 장학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공직이었던 아버지의 직장을 박탈할 뿐 아니라 당시 무허가 건물이었던 집마저 공유지 점용허가를 취소하여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협력하지 않으면 온 가족의 생계를 말살해버리겠다는 협박이었다.

당시 7남매의 생계와 교육이 아버지의 교직에 달려있었고, 전 재산인 집을 빼앗기면 우리 식구는 오갈 데가 없는 신세였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집요하게 강요하는 품이 단순한 엄포 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 나는 몇몇 선배와 상의하여 가족들과 연락도 끊고 몇 달 간 피해 있을 요량으로 제주도로 잠적하였다. 거기에서 약 3개월 쯤 지내다가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군에 입대하였다. 훈련소에서 또다시 보안사로 끌려갔는데 보니 김홍원이 와 있었다. 그는 집요하게 학내 사건에 대한 취조를 해냈지만 오히려 군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군생활 중에 10.26 사건이 나서 세상이 바뀌었으며 학교도 복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의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의 시대는 그렇게 끝난 것이다.



하석태_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76학번. 토일·토익 대학강사, 정일학원 원장,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목동영어학원 원장(현)
신명식_ 경희대 사학과 76학번. 내일신문 편집위원(현)

거사 직전! 정경대 5층 구석에서 서 있던 한 청년은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밤을 떠올린다. 지난 몇시간 동안의 터질 듯한 긴장 때문인가, 어젯밤 잉크 냄새가 코를 찌르던 동료의 자취방 풍경이 왠지 몇 년 전처럼 아득하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본다. 학내 곳곳에 여전히 경찰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지만 아직은 특별히 이상한 조짐은 없다. 강요된 침묵! 그리고 조작된 질서! 그러나 이제는 반란의 시간이 왔다. 마치 방아쇠를 당기듯 청년의 손끝이 천천히 비상벨 위에 얹힌다.

갑자기 건물 전체가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오는 교수와 학생들의 눈앞에 연기처럼 유인물이 솟구친다. 목청껏 구호를 외치며 한걸음에 1층으로 내달리던 청년의 눈에 역시 유인물로 뒤덮인 문리대가 보인다. 그곳에 지금 똑같은 ‘뀨’ 을 치고 있는 그의 동료가 있을 터였다.

같은 시간 대운동장. 불암산 행 행군을 격려하던 조아무개 총장의 등 뒤 의약품 옥상에서 ‘유신철폐’ 현수막이 선언처럼 내걸린다. 이와 동시에 대열 맨 오른쪽에서 한 청년이 총을 내던지고 외마디 구호를 외치며 달려나간다. 순식간에 그를 에워싸는 교직원과 경찰들, 그리